

# 위기의 여수석유화학산단...지방세 70% 줄고 가동률 '뚝'

### 석유화학 실적 악화...상반기 여수시 세수 전국서 3번째 많이 줄어 신용등급도 일제 하락...전남도 TF팀 꾸려 친환경 산단 전환 분주

전남 산업의 주축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여수 석유화학산단(여수산단)이 위기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및 중동의 공급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석유화학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여수의 지방소득세 징수가 크게 주는 등 지자체 살림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한편, 각국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제한 정책을 감안, 기존 화학산업을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실적 악화에 소득세 반토막=석유화학산업의 부진 여파로 여수시의 올해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70% 급감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수의 법인지방소득세는 490억원으로 전년(1599억원)보다 무려 69.3%나 줄었다.

여수의 감소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상위 20개 지자체 중 경기 이전(-80.9%), 경기 수원(-77%) 다음으로 크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 다음 년도 4월 말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다.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종합·양도·법인·특별징수 가운데 가장 큰 데,

일반적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5% 정도 차지한다. 여수의 경우 그 비중이 더 크다.

지난해 상반기 거둬들인 여수지역 지방소득세는 1971억원으로 이중 법인지방소득세는 81% (159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총액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전체 지방소득세 817억원 중 5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하반기까지 기다린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기가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지자체 살림살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 셈이다.

◇석유화학위기, 친환경으로 경쟁력 확보해야=석유화학업계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상반기 신용평가사들은 실적 악화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했고, 여수에서는 공장 매각설 및 가동 중단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들도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7월 여천엔씨 등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변경했고,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일제히 등급을 내렸다.

여수산단 가동률도 지난 3월 기준 82.5%로, 전년 같은 달(84%)보다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산단은 전체 260업체 중 절반 수준인 13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만큼,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화학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및 중동의 공급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중섭(민주·여수 6)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남도의회 제 383회 임시회 기간 전략산업육성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맞지 않아 여수산단 내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매각이 추진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전남 제조업 쇠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강문성(민주·여수 3)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저가공세와 EU 탄소세 도입 등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전남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전남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도 지난 6월 정부를 상대로 여

수산단 석유화학산업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당시 "여수산단은 1967년 조성 이래 국가와 지역 경제 성장 기반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를 구성하고, 위기 대응 TF팀을 구성해 산업구조 개편 및 고성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감안, 석유화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남도는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산

단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로 지정받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은 기존 석유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연료 등의 화이트바이오 산업과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대표되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산업을 의미한다.

전남도는 이번 주 석유화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 여수지역 석유화학 관련 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수수료 인하 상생안 나올까...배달플랫폼·입점업체 협의체 4차 회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과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관련 매출의 24%가량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촉

구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팽거요 등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를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입점업체 측이 제기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5·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토대로 주체별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추석 명절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과일'

### 성인 남녀 2000명 설문조사

###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상품권'

추석 명절에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과일', 받고 싶은 선물은 '상품권'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지난 달 16~20일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계획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고 싶은 선물은 과일 선물 세트가 34.1%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상품권(32.5%), 정육 선물 세트(31.2%)가 뒤를 이었다. 과일과 상품권은 지난해에도 1·2위로 꼽혔고, 정육은 지난해 3위였던 건강기능식품 자리를 대신했다. 선물 세트별 구매 의향 가격은 과일은 5만원 이

상, 상품권 10만원 이상, 정육은 1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과일은 선호하는 종류가 다양해졌다. 1·2위는 명절 대표 과일인 사과와 배가 차지했지만 샤인머스켓, 한라봉-레드향-황금향, 포도-거봉, 망고-에플랑고 등에 대한 선호가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중 절반은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소상공인이 만든 제품을 선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받고 싶은 선물은 상품권이 45.5%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정육 선물 세트(34.3%), 과일 선물 세트(30.9%) 순이었다.

상품권은 사용처의 폭이 넓고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석 성묘를 갈 예정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8.5%였다. 방문 시기는 추석 연휴 기간이 57.9%, 추석 연휴 전이 37.6%였다. /연합뉴스

## 새출발기금 확대 12일로 앞당겨...“추심 걱정 없는 추석”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오는 12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

늘림으로써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또 빠졌네...장중 한때 52주 최저가

### 임원들 자사주 매입 줄이어

삼성전자 10일 장중 52주 최저가를 찍었다. 주가가 이른바 '6만전자' 에 머물면서 삼성전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93% 내린 6만 6200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는 장중 6만 6000원까지 내리며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52주 최저가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간밤 엔비디아(3.54%) 강세에도 불구하고 11일 오전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비롯해 같은 날 저녁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다음 주 추석 연휴 휴장, 19일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은 이날 삼성전자를 5910억원 순매도하며 가장 많이 팔았으며 SK하이닉스도 101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을 겪고 있는 탓인지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지난 5일 자사주 5000주를 장내매수했다. 업계에서는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임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도 지난 3일(체결일) 자사주 1만주를 평균 7만3900원에 장내매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오문옥 부사장이 1000주를 취득했다. 같은 달 2일에는 정용준 파운드리품질팀장(부사장)이 1000주를 사들였다. /장용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3.43 (-12.50)
↓ 코스닥	706.20 (-8.26)
↓ 금리(국고채 3년)	2.877 (-0.020)
↑ 환율(USD)	1344.05 (+4.25)

## 기아차 직원들 추석 성과급 역대급 '돈벼락'

### 기본급 600%·현금 1780만원 지급 2024년 임단협 잠정 합의

기아 노사가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600%와 현금 17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오는 12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되는데, 통과되면 기아 직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역대급 돈 벼락'을 성과급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9일 경기 광명 기아차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결정했다. 4년 연속 무분규 합의로, 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 담겼다. 기본급에 따라 직원별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현금만 1700만원이 넘는다.

기아는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노사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혜택도 많고 건강검진 제도를 비롯한 기본 복리후생 제도도 확대된다. 경조사 지원, 여가 사용 확대 등의 복지 제도 강화안도 담겼다.

기아 노사는 또 2025년까지 생산직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TP, 전남 중소기업 연구조직 협의회 구성



전남테크노파크가 최근 전남지역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들과 함께 '전남 중소기업 연구조직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10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남소재 연구조직은 1292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국 7만6649개소의 1.7%에 해당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연구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14개소, 연구개발전담부서 8개소 등 22개 연구조직으로 전남 중소기업 연구조직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협의회 안내 및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내 연구조직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기관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전남의 연구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상

환한 경우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

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 용처 증빙을 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대출 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 /연합뉴스